

## 깊어가는 가을의 사색 6일 새만금문화예술제

제5회 새만금문화예술제(청하사랑발전연합회 주최, 위원장 설경일)가 이달 6일 김제 청하면 새창이 다리(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멘트 다리)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이번 예술제는 '희망의 빛을 문학에! 꿈의 빛을 김제 청하에!'라는 주제로 만경강 들녘에서 푸르른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며, 김제 시울림의 시낭송 페레이드를 시작으로 국악, 가곡, 상송 등 10개 분야의 다채로운 공연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김제=김정한기자·su2482@



## 김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기획전

김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은 지난달 2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엄파 모악母岳, 금산金山을 품다'를 주제로 기획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김제 모악산과 금산면의 역사, 금산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획했다.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 등 여러 국립·지역 기관의 유물 약 50여 점을 주제별로 열거했다.

/김제=백용규 기자

## 김제 금산중학교 이태민 선수, 전국씨름대회 3위 입상

동국대 부속 금산중학교 씨름부 이태민 선수가 경남도 창원시 진해문화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학산배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산중학교 씨름부는 전북 최대 규모의 꿈나무 선수들을 보유한 가운데 송민수 감독의 탁월한 지도 감독을 받으며 훈련에 임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전북도와 김제시가 지원하는 전북의 별 육성 사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전북도의 예체능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과 김제시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감사비, 장비 구입, 훈련과 경기 출전 경비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 금산중학교는 지난



해부터 '전북의 별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더 나은 환경에서 양질의 훈련에 임할 수 있게돼 소속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김제=백용규 기자

## 씨름계 '전북의 별', 전국대회 3위 입상

동국대 사범대 부속 금산중 이태민, 경남 창원 학산배 대회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학교장 박기남) 씨름부 이태민 선수가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문화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학산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3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4일 밝혔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 씨름부는 전북 최대 규모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꿈나무 씨름선수들이 송민수 감독의 헌신적인 지도를 받으며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이렇듯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 씨름부가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에 대해 학교 씨름부 감독 교사는 전북도와 김제시가 지원하는 '전북의 별 육성 사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하였다.

'전북의 별 육성 사업'은 우리 고장 전라북도의 예체능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강사비, 장비 구입, 훈련 및 경기 출전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는 작년부터 '전북의 별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훈련을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 씨름부 이태민이 상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제공하고 있으며, 소속 선수가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새만금개발공사, 제2대 강병재 사장 취임

원팀(one team) 정신 새만금개발 목표 달성해야  
신속한 업무파악과 신규사업 발굴 등 추진 기대

새만금개발공사 제2대 강병재(姜秉載) 사장이 지난 4일 취임했다.

강병재 사장은 새만금개발공사 상임이사 출신으로 2018년부

터 개발사업본부장을 역임하며 '친수', '친환경', '스마트' 라는 3대 컨셉을 담은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1조 3천억 규모의 도시조성 사업을 조기에 착공시켜 내·외부에서 업무 전문성과 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부 출신 사장으로 조직문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신속한 업무 파악과 신규사업 발굴 등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사장은 취임사에서 창립 초기였던



지난 3년을 새만금 사업의 정착기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3년을 새만금개발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약기로 삼고 당부했다.

시장과 수요자의 니즈가 경영에 반영되는 고객 중시 경영,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환경·안전 중시 경영,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변화 중시 경영을 3대 경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항만경제특구, 수소복합단지 조성, 케이블카 사업,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사업 모델 개발 등 신사업발굴과 업역 확장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로 지역사회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공사 임직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당부했다.

/김제=신주철 기자

## 전북타임스

2021년 11월 5일 금요일

## 전북의 별 육성사업 성과 나타나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중이태민 선수, 씨름대회서 소장급 3위 입상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중학교(학교장 박기남) 씨름부 이태민 선수가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문화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학산배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3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중학교 씨름부는 전북 최대 규모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꿈나무 씨름선수들이 송민수 감독의 헌신적인 지도를 받으며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이렇듯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중학교 씨름부가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에 대해 학교 씨름부 감독 교사는 전북도와 김제시가 지원하는 '전북의 별 육성 사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전북의 별 육성 사업'은 우리 고장 전라북도의 예체능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전라북도과 김제시가 경



기력 향상을 위한 강사비, 장비 구입, 훈련 및 경기 출전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중학교는 작년부터 '전북의 별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속 선수가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제=김정대 기자

# 금산중 이태민 선수, 학산배 전국장사씨름대회 3위

## 김제시 '전북의 별 육성 사업' 결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금산중학교 씨름부 이태민 선수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문화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학산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3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금산중학교 씨름부는 전북 최대 규모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꿈나무 씨름선수들이 송민수 감독의 헌신적인 지도를 받으며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에 대해 학교 씨름부 송민수 감독은 "전북도과 김제시가 지원하는 '전북의 별 육성 사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의 별 육성 사업'은 전북도의 예체능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전북도와 김제시가 경기력



금산중학교 씨름부 이태민 선수.

향상을 위한 강사비, 장비 구입, 훈련 및 경기 출전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금산중학교는 작년부터 '전북의 별 육

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속 선수가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제=인재용 기자

## “우범지역을 향기 가득한 꽃밭으로”

김제 신풍지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공동체활성화 행사

김제시는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협의체 환경분과 회원들이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 사업지구 내 취약지구(우범지역) 환경개선사업(꽃밭 가꾸기, 유채꽃)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분과 회원들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며 3회의 분과회의를 통해 사업시행을 결정하고 지역 내 취약지구 토지주의 무상사용 승낙서를 얻고 스스로 모금을 통해 비용을 적극 마련해 공동체활성화 행사를 진행했다.

환경분과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추가

적인 부지 확보를 통해 김제시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결의했으며, 나아가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협동조합으로 출범을 준비 중이다.

박준배 시장은 “이번 주민협의체 환경분과의 활동이 김제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본보기가 돼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 김제만의 특성을 나타내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영 기자 dy6269@daumnet

## 금산중 이태민, 모래판서 저력 과시

제18회 학산배전국장사씨름대회 출전... 3위 입상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중학교(학교장 박기남) 씨름부 이태민 선수가 지난달 28일부터 28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문화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학산배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3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중학교 씨름부는 전북 최대 규모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꿈나무 씨름선수들이 송민수 감독의 헌신적인 지도를 받으며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송민수 감독은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중학교 씨름부가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전북도와 김제시가 지원하는 ‘전북의 별 육성 사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전북의 별 육성 사업’은 도내 예체능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감사비, 장비 구입, 훈련 및 경기 출전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금산중학교 씨름부 이태민 선수가 제18회 학산배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수상한 상장과 메달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중학교는 작년부터 ‘전북의 별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속 선수가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덕영 기자 dy6269@daumnet